

## Embraer 의 해외부패방지법 (FCPA) 기소유예약정 및 적절한 내부 관리 필요성 입증을 위한 2 억 5 백만 달러의 지불



2016 년 11 월 30 일 Julie Bauman 작성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Embraer SA (Embraer, 엠브라에르)는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주고 회계 기록을 위조하여 해외부패방지법 (FCPA)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2 억 5 백만 달러를 지불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Embraer 가 정부와의 항공기 판매 계약을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및 모잠비크의 정부 공무원을 수백만 달러로 매수하였으며 허위 에이전시 계약을 통해 인도에서 수백만 달러를 부당하게 지불한 혐의를 제기하였다.

미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Embraer 는 미 법무부에 3 년의 기소유예약정에 따라 1 억 700 만 달러, 미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 부당이익환수 및 이자를 포함하여 9 천 8 백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기소유예약정의 일환으로, Embraer 는 적절한 내부 회계 관리를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해외부패방지법의 뇌물 방지 조항 및 장부 기록 조항 위반을 인정했다. Embraer 는 3 년 기간 동안 독립된 관찰 유지를 포함하여 수많은 기업 준법 조치 이행에 동의했다.

2008 년, Embraer 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로부터 8 대의 군용기 구매를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관계자에게 352 만 달러를 지불한 후, 도미니카 공군에 약 9,200 만 달러에 판매하였으며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세 개의 명의법인 회사에 지급되었다. 같은 해, Embraer 는 모잠비크 국영 상업 항공사인 Linhas Aéreas de Moçambique S.A 가 Embraer 항공기 2 대를 6,500 만 달러에 구매한 것과 관련하여 그 항공사 관계자에게 80 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 거래는 모잠비크 관계자가 지정한 중개인과의 거짓 에이전시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9 년, Embraer 는 인도 공군에 3 대의 특수 군용기를 판매하기 위해 인도의 한 대리인에게 576 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러한 지불은 비정당한 컨설팅 계약의 일부로, Embraer 의 장부와 기록에 거짓으로 기재되었다. 마지막으로 2010 년, Embraer 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유 및 통제하는 회사 관계자에게 3 대의 항공기 구매 보장을 위해 165 만 달러를 보냈다. Embraer 의 이 모든 항공기 판매 수익은 거의 8400 만 달러에 달했다.

기소유예약정에서, 미 법무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이 약정을 체결하고 1억 700만 달러의 벌금(미국의 양형 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의 하위보다 20% 이하)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된 요인에는 Embraer 이 위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 증권 거래 위원회의 소환장을 받았을 때 정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한 것, 행위 당시의 부족했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차후에 더욱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을 시행할 의도, 완전한 개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있다. 특히 Embraer 는 이번 이슈의 행위와 연관된 관리자와 직원들은 징계했지만, 이메일 증거에 따라 이르면 2004년 있었던 뇌물 수수 논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고위 간부는 징계하지 않았다.

우리는 Embraer 의 최근 해외부패방지법 합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 법무부의 기소유예약정은 Embraer 가 제 3자 기업 및 컨설턴트에게 적절한 실사를 요구하고, 제 3자와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 지불 과정에 대한 관리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적절한 내부 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해외부패방지법에 대한 위반을 막기 위하여 제 3의 업체 혹은 컨설턴트와의 거래에 있어 강력한 내부 준법 감시 절차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